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유준옥¹ · 김희숙² · 하태희³

경북대학교병원 정신보건간호사¹,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²,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정신전문간호사³

Factor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for Mother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You, Jun Ok¹ · Kim, Hee Sook² · Ha, Tae Hi³

¹Mental Health Nurs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²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³Mental Health AP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edical Center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for mothers with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Methods:** Participants were 243 mothers with a child in first and fifth degree of one elementary school in G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20 to April 9, 2010. The instruments used wer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Parent Satisfaction Scale, Korean ADHD Rating Scale, Parenting Alliance Inventory and Scale for Measuring Family Strength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14.0 computer program and included one-way ANOVA, Scheffe back-testing,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mothers showe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with parent role satisfaction, spousal support, and family strengths and negative correlations with ADHD. Significant predictors of life satisfaction for mothers with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were spousal support and sharing of value systems, and these variables explained 37.0% of the variance in life satisfactio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improvement of spousal support and sharing of the family value system should be helpful in promoting life satisfaction for mothers with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Key Words: Satisfaction, ADHD, Spousal support, Family, Strength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에서의 인간은 다양성과 감성적 표현에 가치를 두는 방향으로 변화하며, 삶의 목표 또한 물질적 생활의 안정을 추구하던 생활양식에서 벗어나 얼마나 만족스럽게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가의 문제로 사회적 관심이 옮겨지고 있는 추세이다. 다시 말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되는 성공적인 삶 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얼마나 만족스러

운 것으로 지각하는가의 여부가 더 큰 관심의 초점과 삶의 평가기준이 되고 있다. 이처럼 삶의 만족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여성 특히 어머니들의 삶의 만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아내 및 어머니로서 가정생활 경영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기혼여성이 느끼는 삶의 만족정도에 따라 그 가정의 안녕정도도 결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령기 아동은 청소년기 자녀와 달리 자아정체감 형성이나 독립적인 주체로서의 발달이 부족한 상태로 어머니의 영향력이나 역할이 강조되는 시기이므로 어머니가 자녀양육에서 경험하는 일상적인 스

주요어: 만족,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배우자 지지, 가족, 건강성

Address reprint requests to: Kim, Hee Sook,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01 Dongin-dong, Jung-gu, Daegu 700-420, Korea. Tel: 82-53-420-4927, Fax: 82-53-422-4926, E-mail: hskim8879@knu.ac.kr

- 이 논문은 제1저자 유준옥의 석사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추가연구하여 작성한 것임.

- This article is an addition based on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11년 7월 15일 / 수정일 1차: 2011년 8월 17일, 2차: 2011년 9월 18일 / 게재확정일 2011년 9월 18일

트레스는 아동의 부적응적인 행동문제 발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Oh, 2001). 그러므로 학령기 어머니의 삶의 만족정도는 아동과 가족 전체의 건강정도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생은 생활의 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감에 따라 많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인의 기초를 닦는 시기로,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적 판단 능력이나 실천 능력, 도덕적 정의감 등을 발달시키고 양심이 발달하는 시기에 해당된다(Nam & Yang, 2005). 따라서 어느 시기보다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이 아직까지 어머니의 몫으로 여겨지고 있고, 현재 대부분 핵가족형태로서 가족생활주기 상 영유아기를 지나 학령기에 있는 자녀를 둔 기혼여성들은 자녀들의 또래관계, 학습, 학교생활의 적응 등에 대한 어머니의 역할이 이전과는 달리 주도적으로 지도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부담정도는 가정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쳐 긍정적인 가족체계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Guidubaldi & Cleminshaw, 1989),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역할을 얼마나 만족스럽게 느끼느냐에 따라 삶의 만족정도도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이가 학교에서의 부적응 상태일 경우 어머니들은 높은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아동의 주의집중, 행동 및 충동조절정도는 학령기로 접어드는 초등학생의 학교생활 및 학업성취도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수이므로 이에 어려움이 있는 ADHD 성향이 있는 아동의 어머니들은 자녀가 지닌 많은 문제행동들로 높은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한다(McLaughlin & Harrison, 2006). 더욱이 어머니가 ADHD 아동 위주의 생활을 하게 되면서 가족 내에서의 다양한 역할 수행에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자녀의 ADHD 성향 정도는 가족들의 정상적인 매일의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족 갈등 유발의 촉진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및 가족의 삶의 만족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ange et al., 2005).

한편 자녀양육 시 겪게 되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있어서는 남편의 지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Oh (2001)는 배우자의 지지가 취업모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보고하였으며, Lee (2002)는 기혼여성 대상의 연구에서 배우자의 지지와 우울 정도는 역상관관계가 있음

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볼 때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정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가족 간에 유대감이 있고 의사소통을 잘 하며 공통된 가치체계를 가진 건강한 가족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안정감을 제공하며, 만족스러운 가족관계와 상호작용을 증진시킨다(Yang & Han, 2007). 기혼여성에게 있어서 이러한 가족관계는 매우 중요한 삶의 의미중의 하나이므로 가족건강성 또한 이들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간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주된 대상자는 대학생(Park & Kwon, 2006) 및 환자나 그 가족들(Lee, 2005)로, 일반 초등학생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반면, 기혼여성의 부모역할만족, 배우자의 지지, 자녀 ADHD 특성이나 가족건강성에 대한 연구들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Kim, 2005; Kim & Park, 2010; Lee, 2002; Oh, 2001).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에서는 각 변인들 간의 단편적인 관련성을 파악하는 상관관계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초등학생 어머니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과 맥락 속에서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과거와는 달리 1차 예방에 주 초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예방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이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어머니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각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다양한 기초 정보가 필요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본인의 특성인 부모역할만족도, 자녀의 특성인 자녀 ADHD 성향, 남편의 특성인 배우자 지지, 그리고 가족특성인 가족건강성을 중심으로 이들 변인들이 어머니들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파악해 봄으로써 초등학생 어머니들의 삶의 만족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학부모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 어머니가 지각하는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 부모역할만족도, 자녀 ADHD 성향, 배우자 지지 및 가족건강성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 부모역할만족도, 자녀 ADHD 성향, 배우자 지지 및 가족건강성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초등학교를 둔 어머니가 지각하는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설명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시 일개 초등학교 1학년과 5학년 학생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목적,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대해 사전 설명을 듣고 연구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330명 중 응답이 불완전한 87명을 제외한 243명을 최종 대상으로 하였다. G-power 3.1.3 프로그램을 이용한 예상 대상자 수는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 독립변수 8개일 때 160명으로 제시되어 본 연구대상자 수는 필요한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3. 연구도구

1) 삶의 만족도

Diener, Emmons, Larsen과 Criffin (1985)에 의해 개발된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을 Lee (2005)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삶의 만족도 수준을 묻는 7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니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7점이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5점에서 3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미국판 SWLS의 내적 합치도는 .82에서 .87이었으며, Lee (2005)에 의해 번안된 삶의 만족도의 Cronbach's α = .8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2) 부모역할 만족도

부모역할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Duke, Rose와 Halverson (1997)의 Parent Satisfaction Scale (PSS)을 번안·수정한 Lim (2004)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0문항으로 개인이 자신의 부모역할에 대한 즐거움과 부담감,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7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정말 그렇다' 7점까지 응답하게 되어있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30점에서 21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Lim (2004)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5였다.

3)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본 연구에서는 DuPaul (1991)에 의해 개발된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Rating Scale (ARS)를 So, Noh, Kim, Ko와 Koh (2002)가 번안한 한국어판 ADHD 평가척도(Korean ARS, K-ARS)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주의집중결함 관련 9개 항목과 과잉행동·충동성 관련 9개 항목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매우 자주 그렇다' 3점까지이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5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ADHD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Cronbach's α 는 주의력결핍 .77, 과잉행동 .89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의력결핍 .81, 과잉행동 .74였다.

4) 배우자 지지

자녀 양육에 대한 배우자 지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Abidin (1988)이 개발한 Parenting Alliance Inventory (PAI)의 하위척도 중 teamwork 척도를 Oh (2001)가 번안·수정한 도구이다. 이 도구는 총 13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배우자가 부모로서 부인과 대화하고 지원해주는 정도, 자녀를 평가하는 시각, 자녀문제를 다루는 방법에서 배우자와 얼마나 잘 합의되는지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13점에서 65점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부모로서 잘 도와준다고 부인이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개발당시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5) 가족건강성

가족건강성은 Eo와 Yoo (1995)가 제작한 '가족의 건강성 척도' 3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가족원 간의 유대감 10문항,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9문항,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6문항,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9문항 등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이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34점에서 17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건강성 수준도 높음을 의미한다. Eo와 Yoo (1995)의 연구에서 하위요인 별 Cronbach's $\alpha = .80 \sim .91$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7 \sim .94$ 였다.

4. 자료수집

연구기간은 2010년 3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였으며, 본 연구자가 G시 일개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기관장과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인 사회복지사에게 초등학생 어머니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승낙을 받고 사회복지사에게 자료수집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사회복지사가 1, 5학년 담임교사를 통하여 연구의 목적, 조사 내용 및 설문지 작성법에 대한 설명서, 동의서 및 설문지를 포함한 봉투를 모든 학생의 가정으로 배부하였으며, 이 중 서면으로 동의한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직접 응답하도록 한 후 어머니가 직접 밀봉을 하도록 하여 학생을 통해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87부를 제외한 243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는 국립 B병원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IRB cord number: 1-002)을 받았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삶의 만족도, 부모역할만족도, 자녀 ADHD, 배우자 지지 및 가족건강성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제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한 후 Scheffe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였으며,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산확대인자

(variance inflation factor)와 상태지수(condition index)에 근거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포

대상자의 연령은 36~40세 52.7%, 31~35세 30.0%, 41~45세 11.5%의 순이었고,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 64.6%, 대졸 이상 35.4%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2명이 69.1%로 가장 많았으며, 3명 이상 17.7%, 1명 13.2% 순이었고,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93.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배우자의 직업은 전일제가 90.1%로 대부분이었으며, 대상자의 취업여부는 취업 44.9%, 비취업 55.1%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수입은 100~300만원 미만 51.4%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미만 25.5%, 300~500만원 미만 16.0%의 순이었다. 여가시간은 30분~1시간 미만인 경우가 28.8%로 가장 많았고, 1~2시간 미만 26.3%, 없음 22.2%, 2~3시간 미만 16.9%의 순이었다. 종교는 무교가 43.2%로 가장 많았으며, 불교 29.6%, 기독교 18.9%, 천주교 5.8%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학교성적은 중이 67.9%로 가장 많았고, 학년은 1학년 53.5%, 5학년 46.5%였다(Table 1).

2. 삶의 만족도, 부모역할만족도, 자녀 ADHD, 가족건강성 및 배우자의 지지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평균 점수는 22.1 ± 6.20 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역할 만족도 문항평균점수는 4.9 ± 0.43 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자녀 ADHD성향의 문항평균점수는 주의력결핍 3.5 ± 2.86 , 과잉행동 2.2 ± 2.20 이었으며, 배우자 지지 평균점수는 49.9 ± 7.55 로 나타났다. 가족건강성 문항평균점수는 유대경향 3.8 ± 0.67 , 의사소통 3.7 ± 0.62 , 수행능력 3.8 ± 0.63 , 가치체계공유 3.4 ± 0.65 로 나타났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삶의 만족정도는 연령($F=2.70$, $p=.046$), 교육수준($t=-4.04$, $p<.001$), 배우자 직업($F=10.24$, $p<.001$), 가정의 월평균수입($F=11.71$, $p<.001$), 여가시간($F=5.71$,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4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 (year)	25~30	14 (5.8)
	31~35	73 (30.0)
	36~40	128 (52.7)
	41~45	28 (11.5)
Education	≤ High school	157 (64.6)
	≥ College	86 (35.4)
Number of children	1	32 (13.2)
	2	168 (69.1)
	≥ 3	43 (17.7)
Family type	Nuclear	227 (93.4)
	Extended	16 (6.6)
Spouse's job	Full-time	219 (90.1)
	Part-time	17 (7.0)
	Not employed	7 (2.9)
Job	Yes	109 (44.9)
	None	134 (55.1)
Family income (10,000 won/month)	< 100	62 (25.5)
	100~ < 300	125 (51.4)
	300~ < 500	39 (16.0)
	≥ 500	17 (7.1)
Leisure time for self (minute)	30~ < 60	70 (28.8)
	60~ < 120	64 (26.3)
	120~ < 180	41 (16.9)
	≥ 180	14 (5.8)
	None	54 (22.2)
Religion	Protestant	46 (18.9)
	Buddhist	72 (29.6)
	Catholic	14 (5.8)
	Others	6 (2.5)
	None	105 (43.2)
Academic achievement	High	67 (27.6)
	Middle	165 (67.9)
	Low	11 (4.5)
Grades	First	130 (53.5)
	Fifth	113 (46.5)

다. 그 내용을 보면 대졸 이상이 고졸 이하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배우자의 직업별로는 시간제 취업에 비해 전일제 취업일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수입별로는 300만원 이상의 삶의 만족도가 300만원 미만인 대상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시간에 있어서는 2시간 이상의 여가시간이 있는 경우가 여가시간이 거의 없는 경우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Table 2. Descriptive Data of Major Variables (N=243)

Variables	Min	Max	M ± SD
Life satisfaction	5.0	35.0	22.1 ± 6.20
Parent role satisfaction	4.0	5.8	4.9 ± 0.43
ADHD			
Inattention	0.0	11.0	3.5 ± 2.86
Hyperactivity-impulsivity	0.0	10.0	2.2 ± 2.20
Spousal support	25.0	65.0	49.9 ± 7.55
Family strengths			
Commitment	1.7	5.0	3.8 ± 0.67
Communication	2.1	5.0	3.7 ± 0.62
Ability to solve problem	1.8	5.0	3.8 ± 0.63
Sharing of value system	2.0	5.0	3.4 ± 0.65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반면 대상자의 자녀수, 가족의 형태, 대상자의 취업여부, 종교 및 자녀의 학교 성적과 학년에 따른 삶의 만족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와 부모역할 만족도, 자녀 ADHD, 배우자 지지 및 가족건강성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삶의 만족정도는 부모역할 만족도($r=.38, p<.001$), 배우자의 지지($r=.57, p<.001$)와 모두 순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자녀의 ADHD 성향과는 ADHD의 하위영역인 주의력결핍($r=-.26, p<.001$), 과잉행동영역($r=-.25, p<.001$)에서 역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가족건강성 하위영역인 유대경향($r=.53, p<.001$), 의사소통($r=.52, p<.001$), 문제해결 수행능력($r=.51, p<.001$), 가치체계 공유($r=.55, p<.001$)와는 모두 순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5.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삶의 만족도와 관련성 있는 변수인 부모역할만족도, 자녀 ADHD 특성의 하위영역, 배우자의 지지 및 가족건강성의 하위영역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영역별 지수간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다중공선성 분석에서는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1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나 본 연구에서는 1.000~1.908로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

Table 3.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43)

Characteristics	Categories	Life satisfaction		
		M±SD	t or F	p
Age (year)	25~30	22.1±4.84	2.70	.046
	31~35	20.4±7.28		
	36~40	22.8±5.51		
	41~45	23.3±6.13		
Education	≤ High school	20.9±6.15	-4.04	<.001
	≥ College	24.2±5.76		
Number of children	1	22.8±6.31	0.49	.614
	2	22.1±6.32		
	≥ 3	21.4±5.67		
Family type	Nuclear	22.2±6.29	1.05	.295
	Extended	20.5±4.53		
Spouse job	Full-time ^a	22.6±5.97	10.24	<.001 a>b
	Part-time ^b	16.4±5.89		
	Not employed ^c	18.0±6.25		
Job	Yes	21.5±5.70	-1.35	.179
	None	22.6±6.56		
Family income (10,000 won/month)	< 100 ^a	21.8±6.56	11.71	<.001 c, d>a, b
	100~< 300 ^b	20.5±5.60		
	300~< 500 ^c	25.3±5.35		
	≥ 500 ^d	27.2±5.61		
Leisure time for self (minute)	30~< 60 ^a	21.5±6.19	5.71	<.001 c, d>e
	60~< 120 ^b	22.3±5.91		
	120~< 180 ^c	24.2±5.87		
	≥ 180 ^d	26.7±4.80		
	None ^e	19.7±6.08		
Religion	Protestant	21.4±6.64	0.51	.725
	Buddhist	22.2±6.14		
	Catholic	23.9±5.95		
	Others	23.2±4.88		
	None	22.0±6.18		
Academic achievement	High	23.1±6.19	1.50	.225
	Middle	21.6±6.29		
	Low	22.7±4.10		
Grades	First	21.8±6.27	-0.77	.443
	Fifth	22.4±6.13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Major Variables

(N=243)

Variables	Parent role satisfaction	ADHD		Spousal support	Family strengths			
		Inattention	Hyperactivity-impulsivity		Commitment	Communication	Ability to solve problem	Sharing of value system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Life satisfaction	.38 (<.001)	-.26 (<.001)	-.25 (<.001)	.57 (<.001)	.53 (<.001)	.52 (<.001)	.51 (<.001)	.55 (<.001)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배우자의 지지($\beta=.36, t=5.04, p<.001$), 가족건강성의 하위영역 중 가치체계공유($\beta=.31, t=4.38, p<.001$) 이었고 이들 변수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37.0%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생의 어머니들이 지각하는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파악하여 초등학교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중재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22.1점으로 이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Kim과 Min (2010)의 연구에서의 21.0점과 비슷한 점수대를 나타내었다. 반면 후기청소년기에 속하는 대학생 대상의 Park과 Kwon (2006)의 연구에서 19.1점과 비교할 때 본 연구의 결과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Chung (2005)은 연령과 삶에 대한 만족도 연구에서 고등학생 이상 집단에서의 비교에서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 정도가 높아짐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보고들을 볼 때 자녀를 양육하는 기혼여성은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생활에 있어서 좀 더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취업이라는 스트레스 하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에 비해 기혼여성들은 상대적으로 결혼과 육아를 통하여 안정과 만족감을 획득하는 경향이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 중 부모역할만족도는 4.9점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는 취학 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Kim (2005)의 연구에서의 5.6점과 비교하면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ADHD 성향은 본 연구에서 주의력결핍 3.8점, 행동장애 2.2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여학생 부모 대상의 연구(Kim, 2008)에서 주의력결핍

3.9점, 과잉행동 2.2점의 결과와 거의 유사한 점수대를 나타내었다. 배우자 지지는 49.9점으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Oh (2001)의 연구에서의 46.0점 보다는 다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성역할의 의식 변화로 현대의 아버지들은 과거에 비해 더욱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하고 있어 과거 Oh (2001)의 연구에 비해 배우자 지지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취업모의 특성상 많은 역할 분담을 기대하여 실제로 같은 도움을 받더라도 일반주부들이 배우자 지지를 더 높게 느끼게 되므로, 취업유무를 구분하지 않은 본 연구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의 가족건강성은 3.4점에서 3.8점 사이의 점수대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Kim과 Park (2010)의 연구에서 3.5점에서 3.9점 사이에 분포하는 점수와 유사한 결과이다.

대상자의 삶에 대한 만족정도와 관련된 일반적 특성으로 는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직업, 가정의 월평균수입 및 본인의 여가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학력은 대졸 이상, 배우자의 직업은 전일제일 경우, 가정의 월평균 수입은 300만원 이상일 경우, 본인의 여가시간은 하루 2시간 이상일 경우 삶의 만족정도가 높았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Jho (2000)의 연구에서 남편의 직업이 정규직일 경우, 월평균수입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다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며, 주부를 대상으로 한 Hong (1996)의 연구에서 여가시간이 길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보고한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였다. 한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Kim, Sung과 Kim (1999)의 연구에서는 젊은 기혼여성의 경우 자신이 많은 교육을 받고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주관적으로 높은 삶의 질을 경험하는데 중요한 선행변수가 됨을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는 부분적인 일치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대상자의 취업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Kim (2011)의 연구에서는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삶의 만족정도가 높았다고 보고된 반면, Nam과 Yang (2005)의 연구에서는 취업모와 비취업모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Life Satisfaction

(N=243)

Variables	B	SE	β	t	p	Cumulative R ²
Spousal support	0.30	0.06	.36	5.04	<.001	.32
Sharing of value system	0.33	0.07	.31	4.38	<.001	.37
Adjusted R ² =.37, F=71.55, p<.001.						

간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차이가 없음이 보고되었으며, Lee (2002)의 연구에서도 기혼여성의 취업여부와 우울감은 서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기혼여성의 취업여부와 삶의 질과는 일치되지 않은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직업만족도가 취업모 생활만족도의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임을 보고한 Kim과 Kim (2003)의 연구에서처럼 기혼여성의 삶에 있어서 단지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의 기준보다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느냐가 오히려 삶에 대한 만족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사료되며, 이에 기혼여성의 삶에 있어서 직업만족도의 영향정도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반면 연령 별 삶의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F=2.70, p=.046$) 사후 검정에서는 각 군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대상자의 83%가 30대에 편중되어있는 경향이 있어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으로는 배우자의 지지와 가족건강성 중 가치체계 공유로 분석되어 37%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삶의 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주는 변인은 배우자의 지지로 규명되었다. 배우자 지지는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방 배우자의 필요에 반응하는 것으로(Cutrona, 1996), Jung과 Kim (2008)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배우자의 지지이며, 배우자의 지지 중에서도 이해와 공감에 바탕을 둔 정서적 지지가 양육 스트레스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Burke와 Weir (1982)는 남편의 지지가 취업 여성의 결혼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Crisman과 Riehl (Lee, 2002에 인용됨)의 연구는 배우자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신체적·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기혼여성 대상의 Lee (2002)의 연구에서도 배우자의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우울 정도가 덜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볼 때 배우자의 지지는 가족 내의 역할갈등 및 자녀양육의 부담을 줄여주고 이를 통하여 어머니의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삶의 만족도 관련변인으로서 가족 간의 가치체계 공유가 규명되었다. 가족 간 가치체계 공유는 가치관 및 신념에 있어서 건강한 가치체계를 공유하며, 가족의 목표와 가족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공

유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건강한 가족은 가족의 행복에 늘 신경을 쓰며, 가족의 일원임에 긍지를 가짐으로써 가족 가치관이나 규율의 원리가 가족원에게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다(Yang & Han, 2007). 본 연구에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지만 가족건강성의 하위영역인 가족 간의 유대감, 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 또한 초등학생 어머니의 삶의 만족정도와 정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가족건강성과 삶의 만족도에 관련된 직접적인 선행연구는 없으나 유사한 선행연구로 맞벌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Choi (2006)의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이 높은 가족이 결혼만족 정도도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가족건강성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Yang & Han, 2007)를 살펴볼 때, 가족건강성은 가족 내 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으므로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에도 깊은 관련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초등학생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가족의 건강증진에 대한 방안 모색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또 다른 독립변수인 부모역할만족도나 자녀의 ADHD 성향은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와 상관관계는 있었으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할 수 있는 영향요인으로서는 작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자녀 중심 가족 구도에서 부부관계 중심의 가족 구도로 변화되어가는 새로운 현상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으며,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대상의 Kim (2011)의 연구에서 부모역할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제시된 결과와 비교해보면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자녀양육에만 집중되었던 어머니의 관심이 점차적으로 남편이나 가족 전체의 건강성 유지 쪽으로 변화되어가는 경향을 반영하는 결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초등학생 어머니는 한 가족생활 주기 상 자녀가 학령기로 전환되면서 어머니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오는 전환기의 스트레스가 다른 주기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초등학생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녀양육에 있어 배우자의 적극적인 지지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부부가 함께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부모교육 기회의 확충으로 부부가 교육을 통하여 보다 협력적으로 자녀 양육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건강성을 높일 수 있는 가족 전체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가족 상담 시에는 가족원 모두를 참여시켜 가족원 간에 가치관, 가족만의 규범, 전통의식 등을 공유하여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G시 일개 초등학교 1학년과 5학년 학생의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전학년의 어머니를 포함하는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의 정신건강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일반 초등학교의 어머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프로그램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결과는 초등학교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어머니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제시함으로써 이들의 위해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초등학교 어머니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배우자 지지, 가족건강성 중 가치체계 공유였으며, 이들 변인은 삶의 만족도에 대하여 37%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 지지가 가장 큰 영향요인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가족건강성 하위영역 중 가치체계 공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이 아직까지 어머니의 몫으로 여겨지고 있고, 현재 대부분 핵가족형태로서 자녀들의 또래관계, 학습, 학교생활의 적응 등에 어머니의 역할이 이전과는 달리 매우 중요함으로써 어머니들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나아가 초등학교생들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 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어머니의 삶의 만족 향상을 위해서는 배우자 지지 향상 방안과 가족 간 가치체계 공유 향상을 위한 방안 수립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후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의 탐색을 위한 연구의 제언과 함께 초등학교 어머니들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배우자 지지와 가족 내 가치체계를 공유를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부를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하여 적용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어머니의 삶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REFERENCES

- Abidin, P. R. (1988). *Parenting alliance inventory*. Unpublished scale, University of Virginia, Charlottesville.
- Burke, R. J., & Weir, T. (1982). Husband-wife helping relationships as moderators of experienced stress: The "mental hygiene" function in marriage. In H. I. McCubbin, A. E. Cauble, & J. M. Patterson (Eds.), *Family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pp.221-238).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 Choi, J. H. (2006). Marital satisfaction and family strengths in dual-income teacher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8(3), 163-173.
- Chung, M. S. (2005). Age differences in satisfaction with life.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8(4), 87-108.
- Cutrona, C. E. (1996). Social support as a determinant of marital quality: The interplay of negative and supportive behavior. In G. R. Pierce, B. R. Sarason, & I. G. Sarason (Eds.), *The handbook of social support and the family* (pp. 173-194). New York: Plenum Press.
- Diener, E., Emmons, R., Larsen, R.,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uke, H. D., Rose, H. A., & Halverson, C. F. (1997). Predictors of parenting satisfaction. Paper presented at 58th NCFR conference, Kansas City: Missouri.
- DuPaul, G. J. (1991). Parents and teacher rating of ADHD symptoms: Psychometric properties in a community-based sampl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0, 245-253.
- Eo, E. J., & Yoo, Y. J. (199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cale for measuring family strength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3(1), 145-156.
- Guidubaldi, J., & Cleminshaw, H. K. (198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leminshaw-Guidubaldi Parent Satisfaction Scale. In M. J. Fine (Ed.), *The second handbook on parent educ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 Hong, S. H. (1996). A study on the level of family leisure participation and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of housewive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4(2), 71-84.
- Jho, M. Y. (2000).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in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Jung, M. S., & Kim, Y. S. (2008). *Factors affecting parenting*

- stress in mothers of school-aged children*.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eoul.
- Kim, G. H. (2011). The effects of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al role satisfaction on life-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9(5), 49-57.
- Kim, H. S., & Kim, K. S. (2003). Parental role conflic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dual-earner coupl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1(4), 117-131.
- Kim, H. S., & Park, G. R. (2010). A 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ADHD of children and family strengths.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14(1), 97-113.
- Kim, H. Y. (2008). *The difference in evaluation between teachers and parents on ADHD inclined children using K-ARS measur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I. J. (2005). *Motherhood ideology and parent satisfaction amo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Kim, J. Y., & Min, H. Y. (2010). The effects of adult attachment and satisfaction with life on affection-rejection parenting in preschoolers' mothers.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6(1), 137-155.
- Kim, M. S., Sung, E. H., & Kim, H. W. (1999). Five factors of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married women.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4, 41-55.
- Lange, G., Sheerin, D., Carr, A., Dooley, B., Barton, V., Marshall, D., et al. (2005). Family factors associated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nd emotional disorders in children. *Journal of Family Therapy*, 27, 76-96.
- Lee, I. S. (2002). Depression and husband's support in married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Women Health Nursing*, 8, 482-493.
- Lee, M. A. (2005). *A study on the effects of family resilience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families of the patients with schizophrenia*.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Lim, K. A. (2004). *The relation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spousal support with role satisfaction among men in transition to parenthood*.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McLaughlin, D. P., & Harrison, C. A. (2006). Parenting practice of mothers of children with ADHD: The role of maternal and child factors.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and Mental Health*, 11, 82-88.
- Nam, H. A., & Yang, S. (2005).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role stress in parents of prim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4, 323-334.
- Oh, E. K. (2001). *A research how parenting behavior by the working mothers, support of spouse and the degree of professional satisfaction affect the parenting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okwon University, Daejeon.
- Park, H. S., & Kwon, B. S. (2006). Satisfaction with life and it's predictor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5, 48-56.
- So, Y. K., Noh, J. S., Kim, Y. S., Ko, S. G., & Koh, Y. J. (2002).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Korean parent and teacher ADHD rating scale.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41, 283-289.
- Yang, M. S., & Han, Y. S. (2007). The influence of child's perception of family strengthens and parental childbearing attitude on behavior problems in adolescent transitio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8, 351-363.